

오순절 후 열아홉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9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10월 1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새 36)	인도자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1 번 이사야 (Isaiah) 65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	--------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히브리어(Hebrews) 12:18-29</b>	조상희 집사
-------------------------	-------------------------------	--------

설 교 Sermon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b>(With Reverence And Godly Fear)</b>	김일선 목사
------------	--	--------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	-----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희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	--------------------------	-----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	---------------------------------	-----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	-----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	-----

*찬 송 Hymn	349 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새 214)	다같이
-----------	-----------------------------	-----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	--------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끝없는 욕심에 이끌릴 때가 많았고,

우리의 시선은 악하고 허망한 것을 좇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아직도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딤후 6:7-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찌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한글개역 히 12:28-29)

“Therefore,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let us be thankful, and so worship God acceptably with reverence and awe, for our God is a consuming fire.” (NIV Hebrew 12:28-2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11 (주일)	10/12 (월)	10/13 (화)	10/14 (수)	10/15 (목)	10/16 (금)	10/17 (토)
본문	왕상14 골1	왕상15 골2	왕상16 골3	왕상17 골4	왕상18 살전1	왕상19 살전2	왕상20 살전3
	겔44 시97,98	겔45 시99-101	겔46 시102	겔47 시103	겔48 시104	단1 시105	단2 시106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0/14 오후7:30)	“새로운 일상에서의 사역” (행2:46-47, 롬12:1-2)
토요 새벽기도회 (10/17 오전6:3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4:6-7)-김재우 장로

지난 주일(10/4) 말씀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 12:4-13)

오늘 본문(히12:4-13)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 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부하지만, 오히려 더 세상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신앙의 문제와 위기는 1)우리의 느슨해진 마음 자세와 2)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르게 조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12:4-5).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1)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Discipline)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중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히12:5-6), 2)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히12:10), 3)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히12:11). (마치) 중력이 우리의 몸을 잡아 끌듯이, 우리는 죄악에 점점 이끌려 피곤하고 연약해질 때가 많지만, 다시금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손과 무릎을 일으키며 저는 다리조차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길을 굳게 만들 수 있다면, 즉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기대하며, 지금의 연단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참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